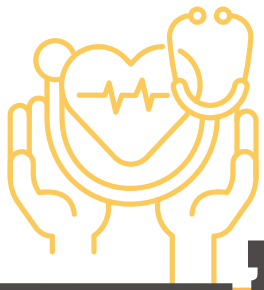
장애 학생들을 끌어안기 위한 농촌 지역사회의 노력, 이랑협동조합



- **소재지**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1길 49-60
- **단체명** 이랑협동조합(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장애 재활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 **키워드** 장애특화 재활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지역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과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시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는 농어촌은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관련 서비스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30대 젊은이들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랑협동조합을 찾아갔다.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시작한 장애 재활 프로그램

이랑협동조합은 특수교육을 전공한 청년 3명이 모여 시작하였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이 모인 것이다. 2011년에 처음 뜻을 모았고, 약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에 이랑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준비 기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시설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이랑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이들이 '충남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이랑협동조합 운영을 기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일반적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임용고시를 거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임용에 뜻을 두지 않고 학교 밖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만나려고 하였다. 마침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과 치료를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정규직 교사로 참여하게 된다. 이때 생각만 하고 있던 특수교육 통합지원센터의 그림이 현실과 만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경험한 가족 프로그램, 교사당 소수 학생 인원 배정 등은 현재 이랑에서도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3명의 설립자는 2012년까지 각자 개인적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일을 이어오

2013 소셜벤처경연대회 입상자로 소개된 이랑 창업준비팀

최우수상 **이랑_ 대표 최대희**

"아이들의 꿈도, 나눔의 마음도, 희망의 믿음도, 이랑에서 키우겠습니다."

아이템 개요: 교육기회취약아동의 발달부터 성인이 된 후 독립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사 업 목 표: 다양한 치료, 교육, 상담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가족붕괴 예방
주 요 내 용: 완주군의 198명의 장애아동과, 50여 명의 발달지연아동, 서비스사각지대 아동 200여 명, 다문화 가족 1638명. 그들을 위한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를 건립
기 대 효 과: 장애인고용의 촉진 및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지원 가능
취약계층의 가정붕괴 위험성 감소 및 농촌지역내 복지수준 향상

출처: 2013 소셜벤처 사례집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다가 2013년에 완주군에 모였다. 처음엔 완주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추천받아 무상으로 치료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진행해오다가,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사업계획 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사업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발견하고 소셜벤처경연대회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이랑 창업준비팀은 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소셜벤처경연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에는 완주군청에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때 스스로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힘을 많이 들여야 했다면, 수상 이후엔 군청 직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어 진행이 빨라졌다. 이를 배경으로 2014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2015년엔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었으며, 2016년엔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게 되었다.

이랑협동조합 설립하여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운영

완주군에는 이미 주민 주도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사회적경제 연결망을 형성함으로써,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여건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랑협동조합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법인 성격을 협동조합으로 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

현재 이랑협동조합은 총 7명의 조합원으로 운영되며, 조합원 구성은 이랑 직원 대표 1명, 이랑 공동 창업자 3명, 이랑 직원 1명, 부모 1명, 지역기업인 1명이다. 조합원 구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랑협동조합 운영에 직원, 창업자, 지역민,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이랑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는 이랑의 설립자들이 설

우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은 이랑협동조합

2013 소셜벤처경연대회 수상

2015 전북 협동조합 대상

제4회 협동조합의날 수상

립 이전부터 그리던 장애 관련 통합지원 활동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설립자들이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이랑협동조합은 특수교육의 영역보다 발달 촉진을 위한 재활 영역에 더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은 인지 영역, 심리 영역, 신체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인지 영역은 언어 재활과 인지 재활, 두 번째 심리 영역은 심리 운동 재활, 음악 재활, 미술 재활, 마지막으로 신체 영역에서는 감각통합, 수영, 인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랑협동조합은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매년 가족캠프를 개최하고, 텃밭에서 가족농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화 관람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런 활동들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설 치료실에선 흔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랑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사업비나 지원금을 받아 꾸준히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3명으로 시작한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현재 11명이 되었다.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에도 이랑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3명의 창립구성원은 이랑을 설립한 후 본인들의 월수입을 과거 직장인으로서 받던 만큼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창립 초기에 고용했던 선생님들의 월급이 2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3명의 창립자는 1년 넘게 150만 원을 나누어 가져갔다고 한다. 그 후 매달 10만 원씩 월급을 올려 2년이 지난 후에 창립구성원 각각 월수입이 150만 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랑의 주 수입원은 현재 약 1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재활치료비이다. 이 비용은 바우처로 받는데, 장애가 있는 학생은 월 20만 원, 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월 16만 원을 낸다. 수입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실을 다진 덕분인지 2014년 회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20년 COVID-19로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

이랑의 과거와 현재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 이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는 학생이 더 늘어나면 임직원 개인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더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과 더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랑에서 가족들의 이랑으로, 키울협동조합 설립

이랑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들은 4년째 주말마다 사회적 농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매장 등 지역 소재 매장에 판매하고 판매금은 아이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다. 그 사이에 부모들이 '키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키울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학생들의 부모, 이랑협동조합, 완주군청 주무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 농업 담당자 등이다. 현재 이랑협동조합 건물에 키울협동조합 사무실을 두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랑협동조합과 키울협동조합은 학생 혼자만이 아닌 가족 단위의 지원을 지향하며, 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뜻을 함께한다.

아이를 치료하려면 부모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회적 농업을 진행할 땐, 직접 키운 소량의 농작물을 판매하고 아이들이 1년에 10만 원 수준의 돈을 번다는 상징적 의미가 전부였다. 키울협동조합은 앞으로 판매금과 별도의 회비를 모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기로 뜻을 모으면서 사무장을 고용하고, 텃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가공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활동이 텃밭 관리나 가족 단위 행사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돌봄체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구상은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센터 등의 모델로 이어졌고 이를 위해 완주군 소셜굿즈센터에 공간을 요

이랑협동조합과 키울협동조합의 사회적 농업 활동

청해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이랑협동조합이 일상의 돌봄 영역까지 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역과 함께하는 이랑협동조합

이랑협동조합은 일반 주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장애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장애를 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랑이 완주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완주군이 가진 사회연결망 그 자체, 또는 사회연결망을 작동시키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있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완주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사업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청년 부문 이사를 이랑에서 맡고 있다. 이랑은 지역사회라는 그물망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그 뜻을 펼쳐가고 있다. 또한, 이랑은 더 많은 학생이 이랑의 활동에 참여하고, 부모들도 좀 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늘리고 있다. 이랑아동발달통합지원센터의 위치가 번화가에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농촌의 부족한 교통 여건을 생각한다면 접근성을 높일 방법이 필요하다. 셔틀 차량을 한 대 더 늘리고, 필요한 경우 직원이 자가용을 직접 운행해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있는데, 부모들의 호응이 크다고 한다.

사회적응 직업훈련

이랑협동조합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처음 이랑을 창립하기 위해 준비하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자본이 충분치 않을 청년들이 지원금만이 아닌 자비를 들여 큰돈이 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랑은 자신들이 품은 꿈을 꿋꿋이 실현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연결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랑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된다.